|  |
| --- |
| **창업 키다리 아저씨 손주은이 말하는 창업 정신** |
| **작성일 2017-09-06** |
| **http://1234way.com/upload/20170906020439992046.png**  **국내 대표 인터넷 교육업체 메가스터디 창업자 손주은 회장. 그는 과거 대치동 학원가에서 월 수억원을 벌 정도로 유명했던 스타 강사다. 그는 강사로서 안정된 삶을 버리고 2000년 메가스터디 창업이라는 새로운 도전으로 국내 사교육 업계 지형도를 다시 썼다. 그는 “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삶의 가치에 대한 고민이 나를 창업으로 이끌었다”며 창업을 고민하는 청년들에게 다음 3가지를 기억하라고 조언한다.**  **도전**  **그가 강조하는 첫 번째 창업 정신은 도전이다. 서울대를 다니고 있었지만 가난한 형편 탓에 생계 꾸리기에 바빴던 그는 1987년 2월 26일 인생의 첫 전환점을 맞이한다. 전 재산이 3만 원 뿐이었던 그때 1만 원을 들여 커피가루와 종이컵을 사 모교 졸업식에서 커피 장사를 하기로 한 것이다. 하지만 졸업식에는 이미 전문 상인들이 들어와 커피를 팔고 있었다. 그는 기죽지 않고 강당으로 들어가 직접 돌아다니며 커피를 팔기 시작했고, 1시간 30분만에 준비한 커피를 모두 팔아 15만 원을 벌었다. 손 회장은 당시를 회상하며 “단 하루의 커피 장사였지만 되돌아보면 그것이 작지만 위대한 출발이었다”며 “도전 하나가 삶을 바꾸는 계기가 될 수 있음을 잊지 말라”고 조언한다.**  **패기**  **그가 강조하는 두 번째 창업 정신은 패기다. 믿을 건 좋은 머리 하나였던 그는 대학 졸업 후 대기업에 원서를 내는 대신 과외 시장에 뛰어든다. 학부모들 연락처를 알아내 전 과목을 월 25만 원에 가르쳐 줄 테니 학생 5명만 모아달라고 말한 그는 얼마 지나지 않아 10명의 학생을 모았고 이 10명을 데리고 다양한 공부 방법을 시도한다. 심지어 가장 집이 넓은 학생 집에 모여 9박 10일 간 특훈을 하기도 했다. 좋은 직장에 취직할 수 있었지만, 남다른 이 패기는 그가 단 2년 만에 2억 원을 모을 수 있게 해줬고 이후 메가스터디를 창업하는 데 큰 밑거름이 된다.**  **선의**  **도전, 패기에 이어 그가 가장 강조하는 창업정신은 바로 선의다. 창업에 돈벌이 욕심만 크고 선의(善意)가 없으면 오래가지 못한다는 것이다. 메가스터디도 이 같은 생각에서 만들어진 곳이다. 사교육으로 수억의 돈을 벌었지만 그의 마음속엔 항상 ‘있는 집 애들만 잘 되게 해준다’는 부채 의식이 있었다. 그래서 그는 이후 월 2-3만 원에 집에서 전문 선생님의 강의를 들을 수 있게 해주는 시스템을 고안해냈고, 2000년 메가스터디를 설립하게 됐다. 부유층, 서울 지역 학생들이 아니어도 인터넷만 쓸 수 있다면 차별 없이 같은 강의를 들을 수 있게 해주겠다는 생각에서였다.**  **현재 운영하고 있는 청년을 위한 투자 재단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만들어졌다. 300억 원이라는 거금을 출연했고, 이를 언제 회수할 수 있을지 기약이 없지만 적어도 돈이 없어 반짝이는 아이디어가 그냥 묻혀 버리는 걸 막고 싶다는 게 손 회장의 생각이다. 그는 현재도 여러 강의를 다니며 “선의를 갖고 창업에 도전하면 반드시 성공한다”고 말한다.**    **문석규 기자** |